공공실증 연계, 스타트업 스케일업 본격 지원

전북TP, 민간투자유치 기반… 전북형 실증-조달 연계 모델 구축

전북테크노파크(전북TP)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의 기술 실증과 시장진입을 지원하는 '2025년 민간주도 스타트업 스케일업 실증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오는 8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일반 벤처 창업기업 및 민간 투자 유치 성과를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실증(PoC)을 통해 기술의 현장 검증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달 진입, 인증 획득, 민간 투자 유치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주기형 스케일업 지원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자치도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 확인 기업으로, 스케일업 트랙의 경우

전북도 지정 투자사 또는 민간 투자사로부터 직접투자 유치 이력이 있어야 하며, 공공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실증 과제는 디지털 행정(AX), 기후테크, 농생명, 스마트시티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선정된 기업은 실증 수행을 위한 사업비로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실증 장비 설치비, 시제품 제작비, 인증 컨설팅, 규제 대응, 실증 결과 홍보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집행이 가능하다. 실증은 전라북도청과 도내 14개 시군,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수요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실효성 높은 과제를 구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북TP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록, 공공 납품 연계, 성능 인증, 투자유치 등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연계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북지역 창업기업이 기술력 기반의 실증을 통해 시장성과 사업역량을 입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공공조달 및 민간시장 확대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규택 전북TP 원장은 "전북은 실증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창업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곳"이라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민간의 혁신기술이 공공영역에서 검증되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전북TP 홈페이지(www.jbtp.or.kr)에서 공고문 확인 후, 8월 18일 오후 4시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심사와 실증 계획 평가를 거쳐 9월 중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G전자와 함께,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융복합 기술개발·확산 힘 모으기

농진청-농업기술진흥원-LG전자, 3자 업무협약 체결

농촌진흥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G전자와 함께 지난 16일 오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박람회(AFPRO 2025)'에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LG전자는 민간 기술과 공공 연구 성과를 융합한 스마트농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협력 체계 구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식량안보 등 농업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농산업 성장을 유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항균 소재, 저장·유통, 데이터 기반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정밀 제어 등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과 현장 실증 및 기술이전, 민간 사업화까지 연결하는 전주기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공공이 보유한 농업 기술, 데이터 및 실증 인프라를 개방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과 민간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개방형 혁신 전략을 촉진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항균 기능성 소재, 식단 추천 알고리즘 등 자사의 전자·소재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접목하고, '씽큐(ThinQ)' 앱과 연동해 소비자 맞춤형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협약 이후 공동 과제 기획, 민간-공공 기술 협력, 현장 실증 등 후속 과제 발굴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서효원 차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 연구 성과와 민간 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농업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농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오상근기자

중기중앙회 "이재용 무죄판결 환영… 경제회복 기여할 것"

중소기업계가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의혹 사건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한 것에 환영 의사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으로 삼성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삼성의 역할과 이 회장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2018년부터 약 700억원을 출연해 중소제조업 2300개사의 스마트 공장을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를 돕는 등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견인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성이 804만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이 회장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4년 10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구축… 바이오산업 중심지 도약

바이오진흥원, 창업 스타트업 사업화 기반 마련 · 중장기 정책 수립… 전북자치도 바이오산업 선도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 구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스타트업 기업의 사업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지식산업센터 구축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의 핵심 인프라 시설로써 바이오소재 연구개발, 기술기반 창업지원, 시제품 개발,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으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신규 선정되어, 2025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도부터 본격 운영 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임대 시설이 아닌 전북이 보유한 농생명 자원과 기능성 식품소재 및 천연물 기반 원료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바이오제품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편, 바이오진흥원은 지식산업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로서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실행에 주력하고 있다.

첫째, 기술창업 및 기업육성 프로그램 고도화를 위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기술검증·IP 확보·시장 연계 등 단계별 지원과 초기 창업기업 대상 임대료 감면, 장비 무상 활용, 비즈니스 코칭 등 인큐베이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유망 바이오소재 발굴 및 실증 기반 강화를 위해 그린바이오, 블루바이오 등 천연물 기반의 고기능성 바이오 첨단소재를 발굴하고, 공동 운영 실증 및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시장 진입 장벽 해소 및 제품 신뢰도 확보에 앞장설 예정이다.

셋째, 산학연 연계와 클러스터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대학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 R&D·인력교류·공동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산업·연구·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형 협업 네트워크 운영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바이오 첨단 기능성 원료소재 등 차세대 바이오 분야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미래지향형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중앙부처 공모 연계, 규제자유특구 지정 검토 등 제도기반의 실증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첨단소재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한 기업지원 공간을 넘어 기술과 시장을 잇는 전략적 플랫폼으로써 센터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중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갈 예정이며 향후 2단계 확장 및 고도화, 투자 연계형 사업모델 도입, 글로벌 협력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바이오산업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2025년 전북개발공사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5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공사는 혁신성,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0인으로 구성된 제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건, 우수상 1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대상 수상작은 전북개발공사가 개방한 토지분양정보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아이디어로 실용 가능성과 국민 체감 효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사는 향후 실현 가능성이 높은 제안에 대해 후속 지원을 검토하고, 공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주택 설치된 누전차단기 확인해야'

전기안전공사, 장마철 · 폭우 전기 사고 예방 수칙 공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는 17일 장마철·폭우 때 전기 사고 예방을 위한 수칙을 공개했다.

여름철은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비와 무더위로 인해 각종 전기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2023년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7월(55명)과 6월(51명) 등, 여름철에 집중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나 장마로 인한 높은 습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습도가 높을 때 누전사고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집 안에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작동 여부는 간단하게 누전차단기에 달려 있는 시험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집중호우 등으로 거리가 침수됐을 때에는 전기시설물 근처로 가지 않는 것이 좋다. 가로등과 신호등 등에서 전기가 흘러나와 보행자에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침수지역에서 가져온 전자제품에 전원을 연결하는 행위 역시 위험하다. 만약 많은 비로 인해 가전제품이 물에 일부라도 잠겼다면, 완전히 건조한 이후에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낙뢰가 심할 때는 컴퓨터나 TV의 전선을 뽑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오상근기자